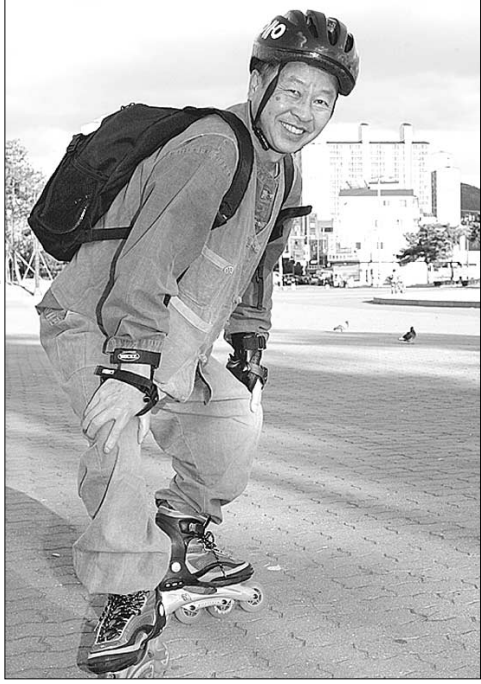


여가시간은 포교·수행의 또다른 기회

취미생활로 삶의 활력 찾는 일터불자들

이대병 포교사

운불련 안양지역회 고문



“운동 통해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불교 부담없이 알려요”

#1. 인라인 스케이트에서 젊음을 배운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안양지역회 고문 이대병 포교사(55·법명 진성). 10월 28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만난 이 포교사는 생활한복 차림에 인라인 스케이트 장비를 착용하고 나왔다. 이유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젊은 사람들과

젊음의 만끽. 고스란히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일터를 불국토로 일구는 직장인 불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일과 수행의 두 바퀴를 거뜬히 굴리는 것은 기본. 젊게 사는 직장인 불자들이 일러주는 비책은 다양하다. 인라인 스케이트에서 스킨스쿠버에 이르기까지 직장불자회 터줏대감들이 털어놓는 발상의 전환이 신선하다. 여가시간을 포교와 수행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 불교가 좋아 일터 불자회를 꾸리고 이끄는 이대병, 정후시 불자가 멋지게 쉬는 현장을 찾아갔다.

만나기 위해서란다.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운 지는 1년, 지난해 9월 수원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가입, 매일 오후 2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인라인은 젊은 친구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 좋아요. 자연스런 대화는 불교를 부담 없이 알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불교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운불련 현역 최고참, 1994년 연합회 창립 주도,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 조계종 포교사, 대승종·여래종 법사인 그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2 스킨스쿠버로 불교를 즐긴다.

서울 성북구청 불교민원 담당관 정후시 불자(52·법명 해법). 관내 스님이나 불자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동료들이 제일 먼저 정 불자를 찾는다 해서 생긴 직책이다. 사실 구청에는 이런 직책은 없다. 정 불자가 불교 일이라면 열일 대처하고 해결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3년 전에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기획 간사를 맡으며 연합회 향후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다.
10월 28일, 잠실롯데 수영장 스킨스쿠버 풀장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금강했다. 직장불자회의 활동도 모자라, 스킨스쿠버까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돌아온 답은 의외였다. 부처님이 좋아서란다. 스킨스쿠버가 부처님 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물 속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어요. 고요함과 무중력 상태에서 느껴지는 평온함. 그야말로 스킨스쿠버는 불교의 또 다른 수행이예요. 호흡 조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산소통으로만 호흡을 하니, 수식관이 절로 된다니까요.”

정후시 불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기획간사



“물속의 고요함·평온함 불교수행에 훌륭한 환경 수식관 저절로 되지요”

정 불자가 스킨스쿠버를 배운 것은 지난해 4월. 계기는 이랬다. 구청업무와 수행생활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싶어서였다. 이제는 스킨스쿠버로 불교를 즐기게 됐다고 말한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news.com
사진=박재현 기자 jwpark@buddhanews.com

우리불자회는요

농협중앙회 불자회

“하하. 농협에 근무하지 않는 데... 안병들 하시죠. 주경스님입니다. 가입환영인사에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메뉴얼이 있어서, 벌써 많은 회원이 가입했군요. 우리 불자님들의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넉넉한 카페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합장.”
“스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법회에서 스님의 팔경도에 대한 설법을 가슴깊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스님의 글을 접하니 무척 반가워서 얼른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카페 운영(http://cafe.daum.net/nacfbuda) 계



◇농협중앙회 불자회원들이 매주 회의실에서 불교경전 공부하고 있다.

불심 바탕 신도불이 정신 실현 위해 노력 농협불자련 구성... 권역 불자회를 하나로

시판에서>
최근 문을 연 우리 농협중앙회 불자회 카페에서 꽤 온 글입니다. 스님과 불자회원의 글에서 진한 법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언제나 늘 그렇듯이 우리 불자회는 부처님처럼 살기를 서원합니다. 또 불심으로 신도불이(身土不二) 정신을 실천하려는 것도 우리 불자회의 원력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지난 1994년 2월에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기법회는 매주 한 차례 농협중앙회 내 회의실을 이용해 불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우리 불자회의 자랑입니다. 가끔은 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법사를 초청해
쉬운 불교교리 그리고 애사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달 회보 <불이 문>을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물론 농협 곳곳에 비치, 농협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앞으로 현재 경남, 부산권의 농협불교회, 충청권의 농협불교회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한 농협불자들을 하나로 조직해 전국 농협불자연합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지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모아 직장불자회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실행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

우리 모임에선



철도사랑 꽃꽂이 전시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조진규·사진)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성북역에서 (사)보림예술꽃꽂이회 초청, 철도사랑 꽃꽂이 전시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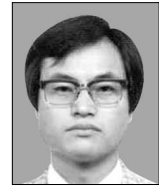
직장불자의 수행법 특강

우리은행불자회(회장 정진호·사진)는 13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연 스님에게 ‘직장불자의 수행법’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추계 야외법회·성지 순례

한국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사진)는 9일 경북 봉화군 청량사로 추계 정기 야외법회 및 성지순례를 떠난다.



법우회 활성화 방안 논의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환·사진)는 20일 암사동 동명불원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법우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주 감사 등 사찰 순례

경북 김천소년교도소 불자회(회장 김기화·사진)는 10월 26일 공주 감사, 신흥사 일대로 가을 정기 사찰 순례 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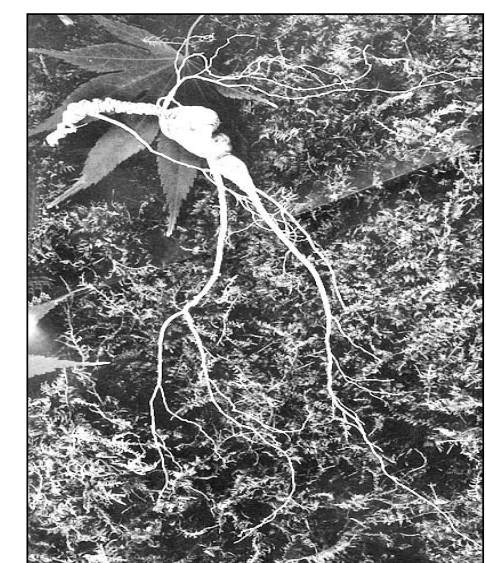
창립 21주년 기념법회

경산조계정 강경회(회장 정철규·사진)는 14일 조계정 자체법당 금강원에서 창립 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대구 보리사 주지 증각 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蓼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7가지 下藥 1257가지로 모두 3657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蓼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에도 배달해 드리지 않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원 증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장애,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蓼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우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蓼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敬贈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인과응보의 원리와 권선징악의 진수를 다룬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아동문학가 함재수 법사님의 주옥같은 법회교재 결정판!

함재수 법사님의 낭독 동화극장

어린이의 새벽

‘어린이의 새벽’은 아동문학을 법회 교재용으로 점목시킨 고귀한 6바라밀 금자탑입니다.
‘어린이의 새벽’은 우리나라 포교 역사에 획을 긋는 한 줄기 등불입니다.
‘어린이의 새벽’은 사바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끌고 밝게 일깨우는 함재수 법사님의 혼불입니다.

불교성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氣
부름 부르는 氣

생명의 원천을 활성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건강법

핵산! 암을 이기다

‘앞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암 환자의 기쁨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도 상용하기 시작한 핵산의 경이로운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바로 그 책.

이영일 편저·시록판·212쪽·양장본·값 12,000원
하리모나 김수, 미야나가 도시아키 지음·시록판·190쪽·양장본·값 12,000원